

답을 부르는 N개의 질문을 던지다!



2016 NPO의제포럼 X 서울

NPO AGENDA FORUM X Seoul

2016 NPO 의제 포럼 x 서울

14:00 - 14:10

인사 및 영상

14:10 - 15:10

[곰]씹고 듣는 토크쇼 1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일까요?”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 / 의제 기획위원

동물권을 통한 돌봄의 사회화 |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 폐지 좁는 어르신

이종찬 PM

문현석 PM

김수경 PM

15:10 - 15:30

쉬는 시간

15:30 - 16:30

[곰]씹고 듣는 토크쇼 2 “협력, 좋지 아니한가?”

민영서 (사단법인 스파크 대표) / 의제 기획위원

우리 마을 건강의제 |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 청년공간 만들기

장이정수 PM

고석동 PM

박배민 PM

16:30 - 16:40

쉬는 시간

16:40 - 18:00

맛보고 즐기는 1:N 토론회

“당신이 해결하고픈 문제는 무엇인가요?”

18:00 - 19:00

N 네트워킹 파티 (저녁식사)

목차

NPO 의제 사업 소개	4
의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9
보다 나은 사회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짚어야 할 것들	10
의제 사업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 사항	14
2016 의제 사업 소개	22
지역의 주요 의제 (관악, 광진, 동작, 중랑)	24
광역의 주요 의제	40
함께 하는 사람들	46
TIP!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들	50

1) 목적과 배경

시민, NPO, 전문가,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가설과 실험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NPO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의제사업의 목표다.

2015년 의제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대안적 1인 주거, 건강한 골목길을 주제로 기획단이 구성되고, 주제별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가 주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초대해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 지향점 및 해결접근법을 정의하고 핵심 의제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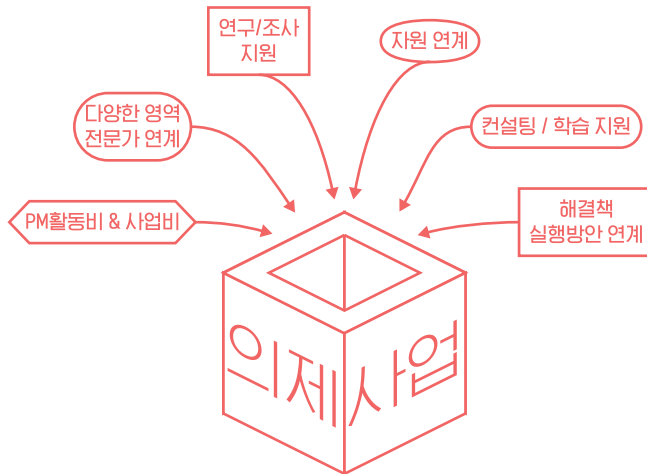
시민들의 일상과 좀 더 밀접한 자치구 단위의 의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5년 하반기에 지역의제 가능성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의제사업은 4개 자치구(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중랑구)에서 각각 3가지 지역사회 의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선정된 3가지 의제에 대해 의제PM과 부PM, 그리고 주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의 여러 그룹과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며,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과정을 밟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애초 문제의식에서 발전된 문제 정의를 도출해 내기도 하고, 전혀 다른 해결책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자치구 의제와 별도로 광역의제라는 제목으로 ‘생활제품 속 유해화학물질’, ‘동물권’, ‘주거권’, ‘차별과 혐오’를 주제로 PM과 부PM이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의제를 제안하며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절차를 인터뷰, 설문, 시민제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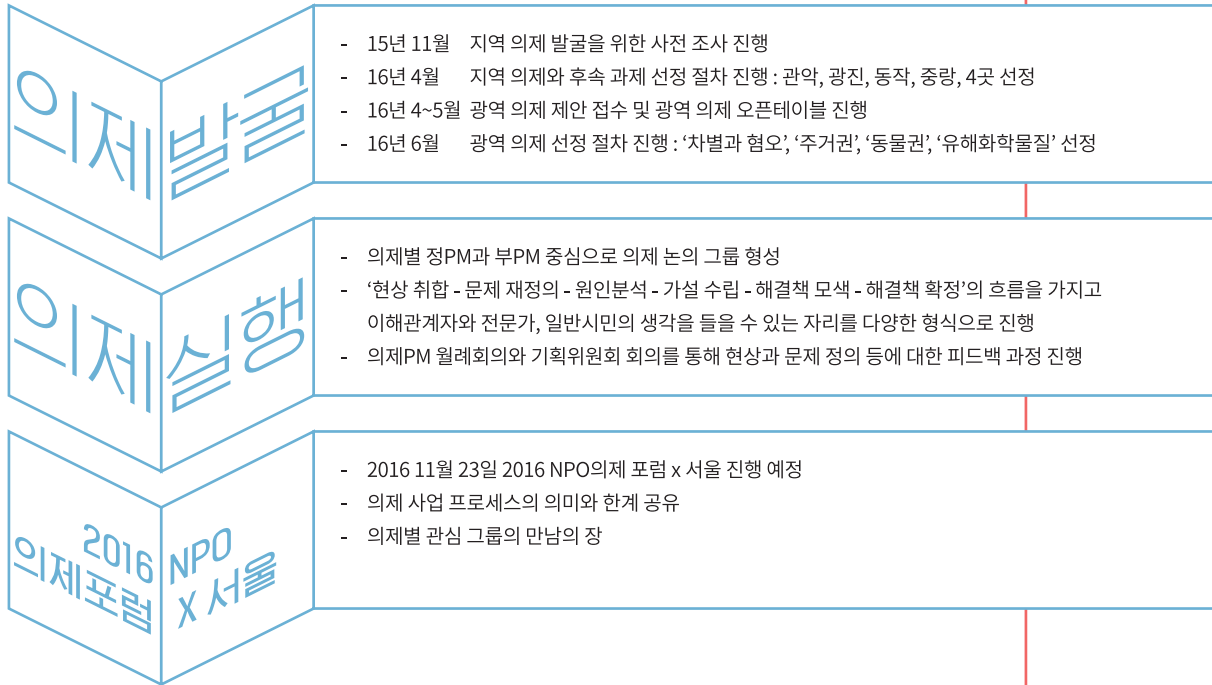
2) 의제 사업에 적합한 파트너는 누구?

- ① 현재 진행하는 운동이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 갑갑한 사람
- ② 뭔가 일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돌아보면 제자리라고 느껴지는 사람
- ③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갑갑한 사람
- ④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원과 파트너를 못 찾아서 힘든 사람

3) 의제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역할



4) 의제사업 진행 과정



5) 의제 사업 변화 지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내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는가?

- 기존 관계 맺은 당사자 이외의 추가적 이해당사자의 시각 반영 유무
- 현장 관찰의 방법, 횟수, 깊이의 변화 유무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설의 수립 및 검증 방법의 변화 유무
-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재구성 유무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는가?

- 의제에 관심있는 시민을 발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방안)을 만들었는가?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했는가?
- 등장한 사람들은 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새로운 해결책 도출과
실행 네트워크 구축에
변화가 생겼는가?

- 새로운 해결책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
- 다른 영역(시장, 공공)과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업관계 형성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새로운 해결책을 풀어갈 단계적 로드맵은 SMART한가?
- 새로운 해결책을 풀어갈 단계적 로드맵의 협업 주체 명단은 확보되었는가?

2 의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이런 목소리를 자주 들곤 한다.

“우리 사회에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그동안 시민사회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던 시민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다.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본래 특성은 문제 제기와 권력 감시 능력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는 것을 요구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IY로 대표되는 메이커들의 등장과 문제해결을 내세우는 사회혁신그룹의 등장은 이러한 사회 요구에 부합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요구받는 시민사회의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문제의 정의는 무엇인가?

센터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의하였다.

“시민사회가

- ①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관심 있는 현상만을 부각시키고,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과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외면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 내지 못하고,
- ②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였다 하더라도) 해결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설 수립과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오지 못하고,
- ③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온다 하더라도) 자기 역량만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한정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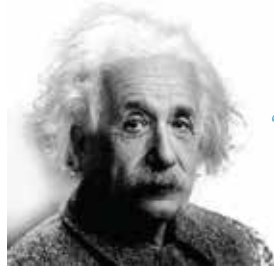
3 보다 나은 사회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짚어야 할 것들

“If I had an hour to solve a problem and my life depended on it, I would use the first 55 minutes determining the proper questions to ask, for once I know the proper question, I could solve the problem in less than 5 minutes.”

1) 질문의 중요성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답이 달라진다. 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운동 속에서 “우리는 사회에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있나?”라는 자문이 필요한 시기이다.

상대성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나는 적합한 질문을 구하기 위해 55분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적합한 질문을 알아낸 만큼은 5분이 채 안 걸려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질문의 중요성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질문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질문의 복원을 꿈꾼다.

질문에 따라 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예가 있다. “어떻게 하면 수술 도구를 가볍게 할 수 있을까?” vs “어떻게 하면 오랜 시간 수술해도 손이 더 편한 수술 도구를 만들 수 있을까?”

두 질문의 차이가 해답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하나는 더 가벼운 재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른 하나는 인체공학적 설계까지 고려한 답을 만들어 냈다.

너무 두루뭇술하지도 않고, 너무 편협하지도 않는 질문을 만드는 힘. 해법의 상상력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질문을 만드는 힘.

바로 이 힘을 키운다면 우리 시민운동에 많은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2) 올바른 문제 정의를 위한 질문

- ① 무엇인 문제인가?
- ② 그것은 현상인가, 문제의 본질인가?
- ③ 그 문제가 누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 ④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가?
- ⑤ 우리가 정의한 문제가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은가?
- ⑥ 여러 문제를 다양하게 나열한 것은 아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 ⑦ 문제 정의에 사용된 용어는 적합한가?
- ⑧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질문

- ① 그들의 문제인가, 내 기준에서의 문제인가?
- ② 그 문제는 왜 해결되어야 하는가?
- ③ 누구를 위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 ④ 그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수혜자도 그것을 문제라고 인지하는가?
- ⑥ 내가 하려는 일에 사회 문제를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가?

문제의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질문

- ①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 ②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 ③ 원인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 ④ 정말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질문

3) 문제의 재구성 : 폐지 줄는 어르신 사례 중심

①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국가 복지체계 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②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위험 저감 방안 모색 : 야광조끼, 수레 개선 등

③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자원활동가(공익요원) 연계 시스템 마련 : 중간취합 후 고물상 판매

④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폐지 이외 일자리 모색 : 마을 정화 이외의 공공근로 형태는 무엇이 가능할까?

⑤ 나이 드신 어르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고가로 폐지 구입 : 러블리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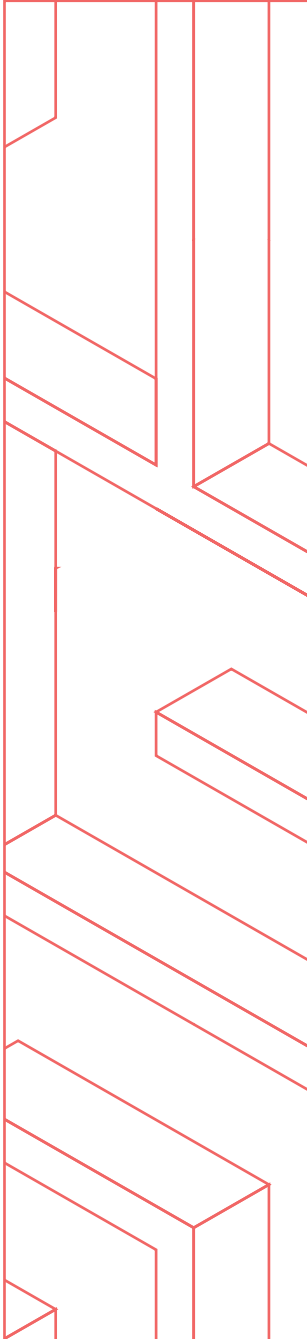
⑥ 국가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신 나이 드신 어른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국가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⑦ 나이 드신 어른신이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채, 먼 거리를 이동하며,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인** 폐지를 주워 판 낮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 한다.

→ 폐지 줍는 어른들이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정기적 수입이 발생하면 국가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가의 복지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함 : 국가 복지 조건의 개선방안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상황을 적어 보시고 문제의 정의를 재구성해 보십시오.



질문의 재구성

질문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의 재구성



새로운 가설 수립

가설의 설정은 적절한지, 또 다른
가설의 추가 가능성 타진



공감확대

당사자의 시각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의 재발견



새로운 주체의 등장

의제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현장의 재발견

현장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할 부분의
재발견



영역을 뛰어넘는 협업

다른 영역 (기업, 정부/지자체
등)과의 파트너십 형성 & 협업
구조 구축

1) 질문의 재구성

[동물권]

캣맘으로 대표되는 거리의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의 고양이를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는 이들의 활동은 때때로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불러오기도 있다. 사람들은 쉽게 캣맘은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캣맘 중에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동물을 좋아하지도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캣맘이 되고, 동물보호에 나서게 되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돌봄이 내 마음 속에 와 닿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돌봄이 사회화 되는 과정을 일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통해 의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 자원 확보와 주거 문제]

광진구의 전월세 비용이 비싸, 광진구의 청년들이 인근 다른 구로 떠난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이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을 통해 광진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으고자 했다. 그런데 의제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 보았다. 그래서 질문을 새롭게 구성했다.

“광진구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광진구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일까?”

2) 공감 확대, 새로운 관점의 도입

[주거권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감 확대를 통한 사회시스템의 변화 모색]

한국의 주거문제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주거권(거주권)이 침해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해오며,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를 사회시스템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서 임대인의 관점이 궁금했다. 임대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지금과 다른 해결책(지역협의체구성 및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조율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의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차별과 혐오]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유색인종 혐오 등등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가 일베를 중심으로 부지불식간 퍼져나갔다. 의제포럼을 계획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악의적 의도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일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별과 혐오는 안 된다는 당위성이 아닌 ‘말(언어)’의 단계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듣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 심리적 압박을 넘어서는 일상생활의 두려움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제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3) 현장의 재발견

[중국인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양꼬치 거리를 중심으로 중국인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양4동의 주민들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위생과 범죄불안이 지목되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을 들여다보니 과장된 내용도 있고, 오히려 다양한 이주민들이 겪는 불안함이나 차별적 시선도 알게 되었다. 과장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는 불안함 혹은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현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제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4) 새로운 가설의 수립

[폐지 줍는 어르신]

연세에 비해 고된 노동, 보잘 것 없는 폐지 수입,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 등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폐지 줍는 어르신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고, 조례를 만들어 지원방안을 만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있다. 동작구도 사업 구상 과정에서 고민했던 수레개선이나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반사광 조끼 등의 방안을 벗어나 근본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의 복지기관, 청년 그룹과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입증 과정을 통해 앞으로 동작구에서 실행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동작구 대방동 지역 폐지어르신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폐지어르신의 기본적 폐지활동은 삶과 끈끈하게 연결-기본 5년 이상 지속적 활동-되어 있으며 시골 텃밭 가꾸는 어르신의 소일거리 활동이 도시로 오면서 폐지수거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에 어르신의 폐지활동을 개선하면서 어르신들이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대방동 지역 중심의 논의기관, 실무자들은 어르신의 활동을 지지하고 잘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다. 고민의 시작으로는 우선 내년 거점공간을 확보, 그 공간을 주기적으로 오픈-주 1회, 1~2시간 실무자 상주-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 어르신의 휴식, 일상 나눔, 정보 안내, 필요자원 연계, 정서적 지지 등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5) 새로운 주체의 등장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반도체노동자의 죽음에서 구미 불산 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까지 이 모든 사건을 접하며, 시민들은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규나 제도는 너무 허술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려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하다.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시민들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관심이 높은 화학제품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인지, 이를 통해 시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공간으로 팩트 체크라는 운동을 기획하고 진행 중이다.

[교육 의제]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는 걸까.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웃음을 잃고 경쟁과 입시를 통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왜 서울시 학력 최저라는 우리 구에서는 늘 입시설명회를 하면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몰려들까. 우리 지역에서는 입시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을 상상하고 꿈꾸는 학부모들이 없을까.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한번 같이 만나보자, 이렇게 시작한 모임에 10명 넘는 학부모들이 참여했고 그 10명이 100명을 조직해 100인 토론을 열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공동체, 입시가 아닌 배움을 바라는 새로운 학부모들이다.

6) 영역을 뛰어넘는 협업

[긴급주거지원]

다양한 이유로 현 주거지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기존 주거지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주거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정책을 정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들이 협업하여 민간이 긴급주거지원시설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제를 진행 중이다.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의 희망드림센터가 관악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지 도전 중이다.

[중랑구민의 건강]

중랑구의 건강지표는 25개 자치구 중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건강 문제는 생활습관, 생활환경, 의료체계, 보건정책 등 다양한 내용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가 많다. 중랑구에서 건강에 관심 있는 다양한 그룹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중랑구의 건강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는
시장시
2

[중앙지역 테이블]
폐지 줄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시민의 상과
마음은 담다

5 2016 의제 사업 소개



관악구

- 주거
- 상가에너지
- 자치구 공동 조직

광진구

- 외국인 이주민과 원주민 갈등
- 청년 주거
- 대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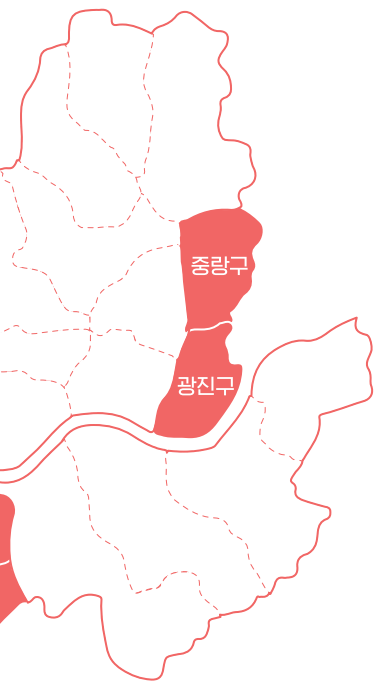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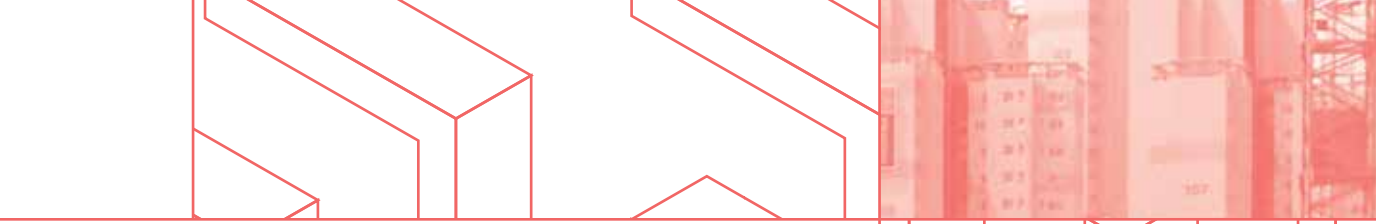
동작

- 폐지줍는 어르신
- 청년 주거비
- 공동 기금

중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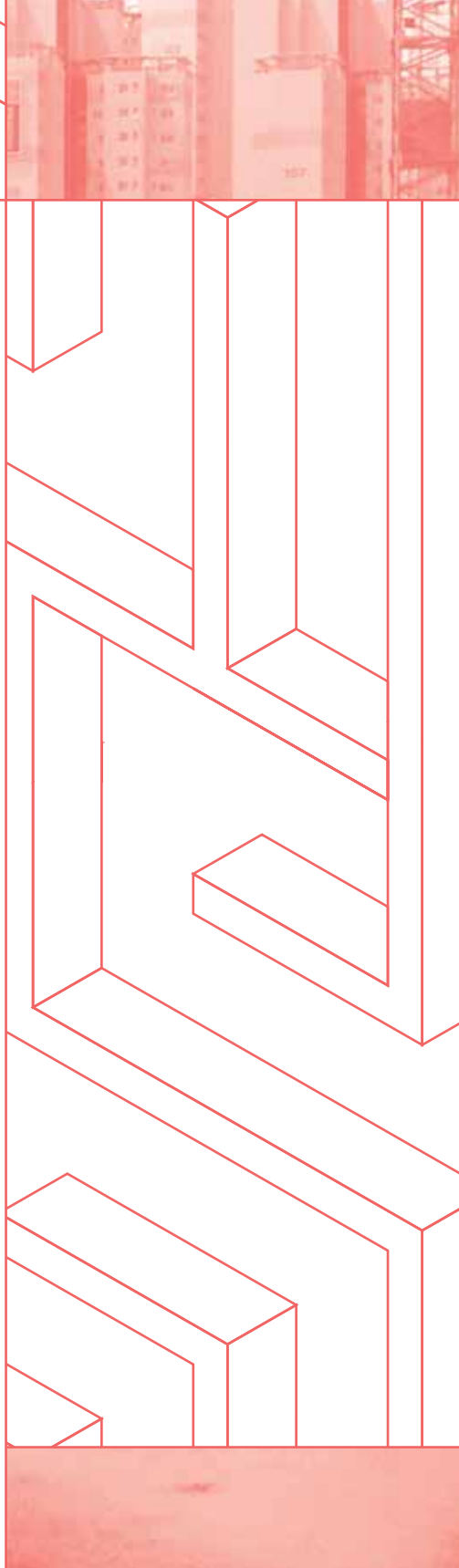
- 건강
- 중랑구 교육
- 청년 공간





광역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 차별과 혐오
- 주거권
- 동물권



관악의 주요 의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1. 관악구 시민사회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조직 설립

1+1=2를 뛰어넘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 힘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구정(區政)의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관악구 시민사회의 공동 조직이 필요하다.

2012년 이후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민관협치영역이 다양해지고 실제 시민사회도 협치영역으로 들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행정과의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하부단위로 전락한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협치가 편향적으로 강화되면서 시민사회의 고유기능인 기록권,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마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진단 아래 시민사회가 협치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체가 아닌 공동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시민사회단체가 7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10가지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통합성장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중 6가지 과제가 시민사회공동조직의 기반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준)관악공동조직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악공동조직 제안대회(3.18, 5.20)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주민들에게 공동조직의 필요성, 역할 등을 제안하였고, 공동기구 준비워크숍(8.20)을 통해 서울시협치와 시민협력플랫폼사업 준비, 공동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공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관악구시민사회공동조직준비위원회를 통해 공동조직의 과제를 정리하고 인력배치와 예산확보방안 등 실질적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2. 주거권 확보(긴급주거지원 & 주택점유유형별 갈등 해결)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나, 새로운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긴급 주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거유형별(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로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양한 반면, 제도나 정책 지원은 그리 다양하지 못하고, 특히 자치구 단위의 정책과 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나 제도, 자치구의 시도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다양한 긴급주택의 사례를 수집하고, 대구희망드림센터 등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다.

주택점유형태별 어려움 해결을 위해 관악구 주거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취합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후 민관이 함께 관악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긴급주거의 형태와 실현가능성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3. 상가 에너지

서울의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정작 상가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상가주인의 인식과 실천이 낮다.

상가에서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낮다는 전제하에 실제 상가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나 어려움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상가주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을 실시하였다.

상가간담회에서 상가주인의 관심이 에너지에 미치지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였고 이의 극복을 위한 연구나 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광진의 주요 의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1. 중국인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

자양4동에 외국인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환경 악화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원주민의 불안이 증가되면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높아진다.

자양4동 양꼬치거리를 중심으로, 중국이주민(한족, 조선족)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2016년 10월 기준 자양4동 인구수 대비 약 25%가 중국이주민) 그러면서 원주민과 중국이주민과의 갈등 문제 (위생, 치안 등)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그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원주민(자양4동 통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이주민(양꼬치거리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중국이주민들)들을 인터뷰 하였다. 지역에서 의제관련 제3자의 입장인 자양4동 파출소, 자양4동 주민센터, 자양건강센터, 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인터뷰하여, 의제관련 현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간담회를 열 예정이고, 이 의제를 지역에서 공론화하여 전체 포럼을 열 예정이다.

아직 이 의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할지는, “한국에 온지 5년이 넘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다. 좀 더 일찍, 그리고 자주 이런 자리가 있었더라면,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는 이주민 여성분의 얘기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소통의 자리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청년 자원 확보와 주거 문제

광진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만나기 힘들다. 광진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할 청년 그룹이 많아지면 좋겠다.

광진구에는 2개의 종합대학교(건국대, 세종대)가 있어서, 청년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광진구에 직접 거주하는 청년의 수가 적어서, 지역 안에서 청년의 활동 참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유를 주거문제라고 판단하고, 먼저 청년들 주거환경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주거문제 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주거”의 문제가 컸다.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활동할” 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광진구 “청년네트워크”와의 지속적 공모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번 주에 청년 공간 오픈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단순히 주거에 대한 설문이 아닌, 좀 더 청년이 갖고 있는 고민을 뽑아낼 수 있는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을 의제로 한 포럼을 시행할 계획이다.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은 청년들이 공간을 방문하는 것은 드물다. 따라서 공간이 어떻게 지역 청년들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냐가 앞으로 과제이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3. 대안 교육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부재하다.

옛날과는 다르게, 삶에 대한 꿈과 경험, 고민 등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시대에, 교육의 범위는 크게 넓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삶을 꿈꾸지만, 그러지 못하고 계속 예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나갔다. 처음에는 그러한 욕구들을 “마을학교”라는 곳을 통해 실현 시키고자 하였으나,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보니 의견을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마을학교”에 대한 논의는 사그러 들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게 “혁신교육”이다. 어찌 보면 “마을학교”와 “혁신교육”은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마을학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다가 “공교육”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혁신교육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위주의 “혁신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는 모임”과, 사업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고 있는 “교육 철학모임”, 2개의 단위가 서로 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 단위의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지역 내에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포럼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각 모임별로 참석하여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 보고자 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 교육을 꿈꾸는 지역의 그룹들의 생각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 차이를 소통시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1. 대방지역 폐지 좁는 어르신의 일상변화를 위한 함께 상상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 팔고 있다. 각종 사고의 위험에서부터 고된 노동 강도, 열악한 수입까지 폐지 좁는 어르신이 처한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폐지어르신의 일상 변화를 위해 대방지역의 각 기관이 개별과제로 진행하는 사업을 연결하고 공동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함께 모여 상상하였다.

폐지 좁는 어르신 문제를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에, 우선 폐지 좁는 어르신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의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1.열린 워크숍을 통한 지역기관실태조사 및 브레칭 스토밍을 진행했고, 2.지역사회의 인식 조사와 개선을 위해, 2개 팀(교육팀, 설문지팀)을 구성, 설문지 조사 및 분석, 결과공유(주민 설명회 혹은 간담회 진행) 등을 진행해 왔다. 설문지결과와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설문지 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상황과 현상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하였다. 목적의 명확화, 주변관계망 조사 등 추가/보완을 통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본적인 안전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폐지어르신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대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거점 공간(상시적, 어르신 휴식공간, 지원 공간, 소통공간 등)을 마련, 안전키트 등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는 초기적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2. '지지리공상' 프로젝트, 청년주거비절감을 위한 함께 상상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청년문제의 근원에는 청년주거비가 있다. 청년주거비가 청년빈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이고, 그것은 결국 청년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의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정기 모임을 통해 내부 세미나(3개 주제-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응조사, 청년주거 실태 및 사례조사, 청년들의 주거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년 주체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터디 중심으로 변환하여 진행 중이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청년 중심 토론회를 가져서 우리가 함께 하고픈 구체적 내용을 확인 하고자 한다. 내용 수립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적극적 청년 주체들과 함께 청년주거문제의 해결방안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청년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마을 공동 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을 공동의 일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기금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이제 막 제안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했고, 관련 1.지역(마을)기금 자료 조사, 2.지역기관 실무자 면담, 3.타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진행상황 확인, 4.지역 관련 주체 기관 모색 등 기초 수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기초네트워크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마을기금 관련 기초 네트워크를 마련, 구체적인 의제설정 등을 함께 세우고자 한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중랑의 주요 의제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1. 중랑구민의 건강

중랑구의 건강지표는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중랑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높고 건강형평성이 지역적 편차가 크지만 보건소 중심의 보건의료사업은 여전히 개인의 건강행태개선에 집중되어 있고 건강형평성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했던 다양한 주체들, 환경단체, 병원, 의사회, 생협 등이 모여 각자가 수행했던 사업들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논의하였고 청년, 환경기 여성, 장애자녀의 보호자, 영유아 자녀의 양육자 등의 건강테이블(FGI)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관련 인식과 과제 등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4차에 걸쳐 건강포럼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사업과 의제들을 공유하였고 대상별 4차례 건강포럼과 건강형평성과 관련한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단위들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였고 개별 사업을 넘어 지역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지역건강의제를 함께 정리하고 중랑구의 건강정책 평가와 제안, 주민참여 건강사업 진행, 민관거버넌스를 추진할 중랑건강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이다.

2.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중랑구의 교육정책은 아직까지도 입시위주의 정책이다. 중랑구의 교육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고자 한다.

중랑구 학생들의 학력은 서울시에서 최하위인 탓에 지자체는 오랫동안 입시설명회, 성적우수자 장학금 사업 등에 집중해왔다. 오랫동안 지자체장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길들여진 학교와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입시교육만을 교육이라 생각한 것이다.

대안교육이나 혁신지구 등의 새로운 교육담론과 주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다른 교육을 상상하는 새로운 학부모들과 주민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학부모 모임과 강좌, 학부모, 교사, 학생 100명이 모이는 행복교육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상상력을 촉발하였다.

100인 원탁토론이 성사되었고 원탁토론회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준비했던 10인의 학부모들이 행복교육모임이라는 새로운 학부모조직을 형성하였다. 행복교육모임은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토론하면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지자체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마을학교의 기획과 활동가 양성 등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갈 것이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3. 중랑구의 청년 공간 마련

중랑구에서 사회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나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꿈을 키워갈 공간이 부재하다.


중랑구에는 개별 단체나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존재하지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문화도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혼자 일하고 조용히 좌절하고 훌러덩이 떠나거나 떠난다. 청년들이 서로 힘이 되고 발돋움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도했다. 일단 서로 알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바쁘고 힘겨운 청년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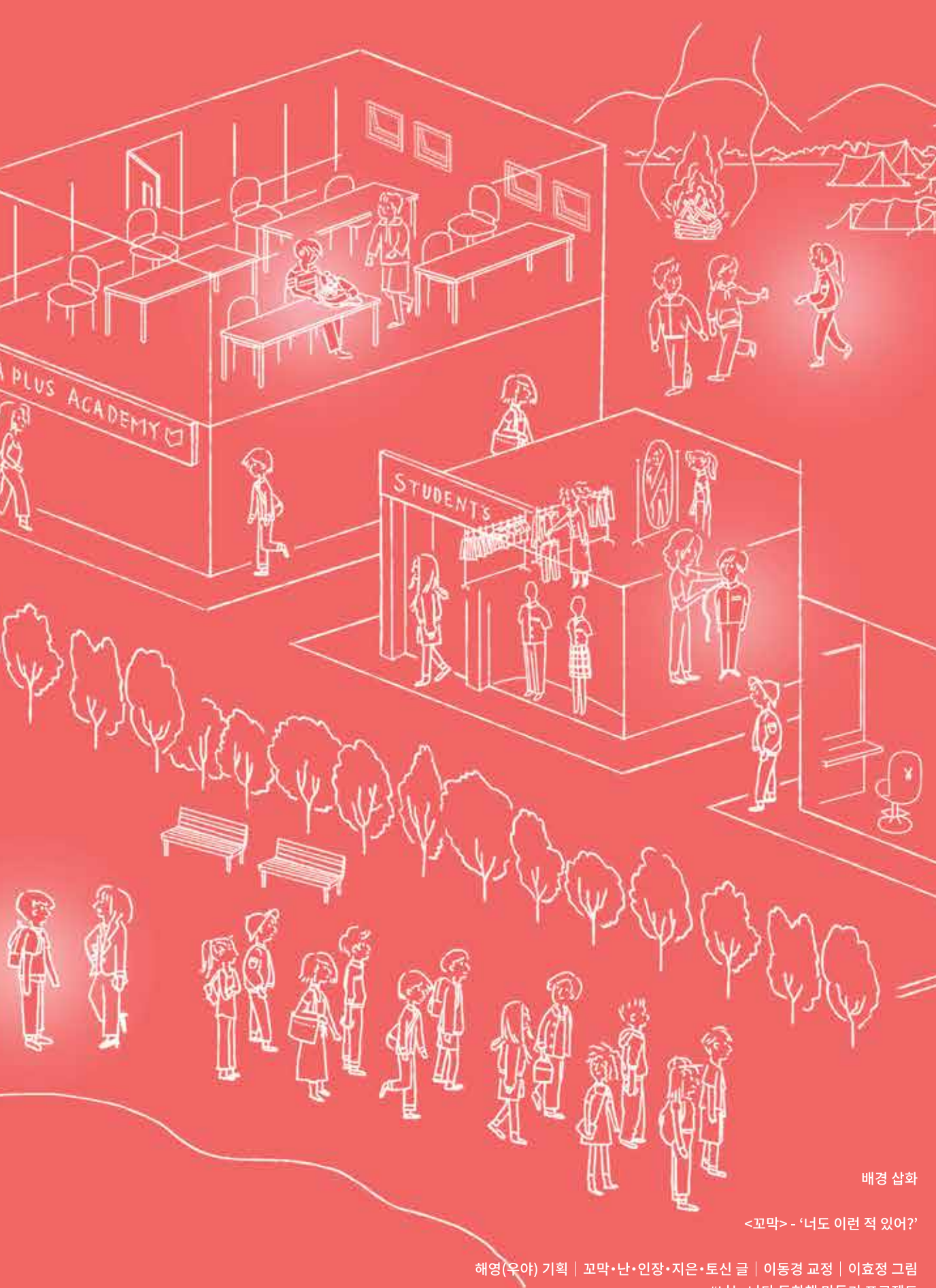
매달 한번씩 청년들을 만났다. 다른 지역의 청년공간에 대한 이야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이야기, 청년수당이야기, 우리들 건강 이야기 그리고 8명의 마을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지금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였다. 삼삼오오 모여 함께 방송도 만들고 파티도 하면서 무엇을 할까 의논하였다. 마을 청년들의 일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멋진 중랑 청년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의 단체들 공간을 이곳 저곳 더부살이 있지만 앞으로 지역사회에 청년들의 문화와 삶을 위한 협업공간을 계속 꿈꾸며 준비할 것이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배경 삽화

<교막> - '너도 이런 적 있어?'

1. 차별과 혐오

: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대되어 간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여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더 아래로 끌어내리려 방어기제로 혐오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 무의식적으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자제할 것이라 가정 아래, 사회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을 만나서 차별과 혐오의 구체적 생활 속 경험을 정리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캠페인과 동화책 제작을 진행했다.

: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구체적 현실을 토대로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 마련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감 점점 확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의 주거문제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주거권(거주권)이 침해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해오며,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를 사회시스템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주거문제를 사회시스템으로 풀기 위해 또 다른 주체인 임대인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지금과 다른 해결책(지역협의체구성을 통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조율)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 주거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말로 ‘임대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상정하고, ‘임대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지역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실험이 우리사회에 절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신촌 봉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세입자, 임대인, 부동산중개업자 등 다양한 그룹의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봉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관련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과의 관계설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대료와 관련하여 대학당국, 임대인, 학생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하고 논의하는 실험을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3.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가습기살균제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이 많은 텐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4만여 종이 넘지만, 유해정보가 확인된 것은 15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안전성정보도 불투명하고, 시민들이 찾아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정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로 해석하고 평가한다. 누적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와 국가는 적어도 기관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관련 법제도와 지자체 조례를 분석하고 화학물질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vs ‘시민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라는 두 가지 가설에 대해 선행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진행 중이다.

200 여개 제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을 모아서 개별 기업들에게 묻고 답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 응답률은 2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피앤지나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분공개를 약속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모든 생활화학제품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의 경우 <화학물질 알권리 법>이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소방관의 요구와 역할이 컸다(불을 끄러 갈 때 화재연기 등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이라고 접근할 때, 당사자를 소비자, 지역주민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자도 당사자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4. 동물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동물보호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좋아하는가, 반려경험이 있는가는 동물보호 활동의 핵심동력이 아닐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무엇을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왜 사람들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지 구조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사람-동물 돌봄관계를 통해 사람-사람 돌봄관계를 새롭게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게 된 특정 계기가 존재할 것이다.

→ 계기, 환경, 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양질분석 진행

동물보호 활동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 가치관에서 관계에 이르기까지 변화 내용을 확인하는 양질 분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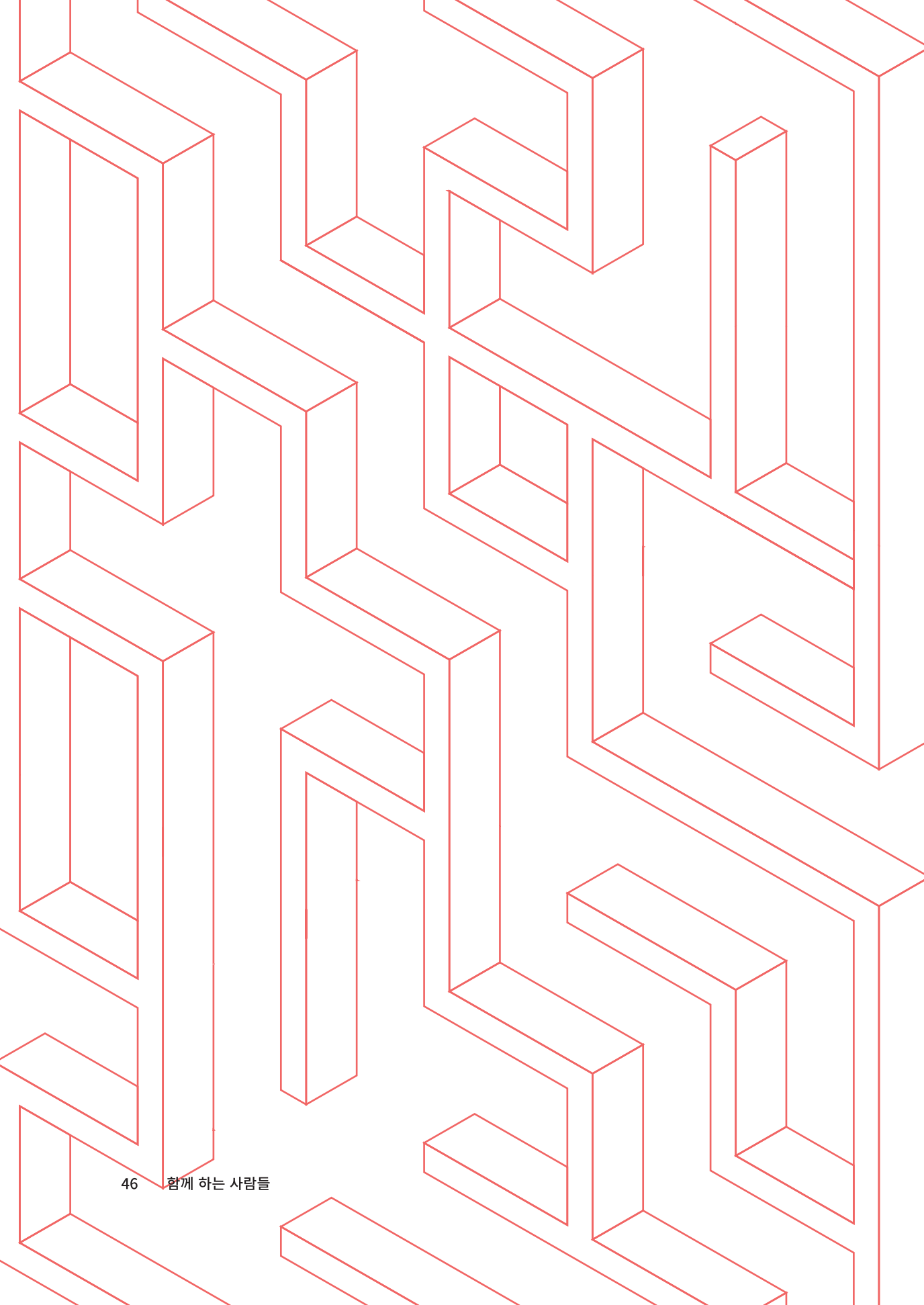
변화과정을 분석한 내용은 '돌봄관계란 무엇이고, 무엇을 변화시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활동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고, 양적 분석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얼마나 삶을 잘 드러내도록 분석하는가의 과제가 남아 있다.

해결할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가설(전제조건) 아래, 무엇을 시도했는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함께 하는 사람들

관악지역 의제 PM



박충근

민민지역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만난 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관악구 주민을 만나고 있는 지역활동가로 구부러진 동네 골목을 걷다 우연히 마주쳐도 환한 웃음을 나누는 사람, 시간 내어 술 한잔 기울이며 깊은 울음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며 관악주민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정두영

관악구 주민의 주거문제를 관악구 주민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소통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지는 한 사람이 되고픈 주거복지 활동가이다.

광진지역 의제 PM



문현석

영화 관련 일을 하다 내가 사는 지역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깨닫고 광진주민연대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했다.



박배민

당연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지역 활동가,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음'과 광진주민연대를 오가며 일을 병행하는 중이다.

동작지역 의제 PM



김수경

두 아이의 엄마, 사람과의 관계에서 활력을 찾으며, 그 활력 안에서 긍정에너지를 뿜으며 생활하고자 애쓰는 중년의 지역 활동가다.



김동관

주민이 주인 되는 지역사회를 꿈꾸는 지역 활동가로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회 총무 및 동작구 의정감시단 집행위원장 활동 등을 맡고 있다.

중랑지역 의제 PM



장이정수

풀뿌리운동과 여성주의,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풀뿌리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적 의제가 일상과 만나는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이윤주

두 아이의 엄마로만 살던 어느 날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을 만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중랑의정모니터링 단장이고,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중랑행복교육모임을 꾸려나가고 있다.



최정희

중랑구 토박이 청년이다. 동네 친구와 함께 맛있게 밥 먹고 산타는 걸 좋아한다. 여성주의와 생태주의를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살고 싶다.

차별과 혐오 의제 PM



신지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며 오늘공작소 활동을 하고 있다.



차해영

내가 '나'일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주거권 의제 PM



고석동

현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11년차 재무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문제인 전월세 부담에 대한 정책운동을 하고 있고, 주거권기독연대에서는 '착한임대인 찾기 프로젝트'등을 진행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운동 중이다.



이태영

신촌에서 주로 머무는 활동가이다. 빌려쓰는 사람들이 사회와 도시의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화와 정치적 장치에 관심 갖고 활동하고 있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의제 PM



최준호

농사, 농구, 농땡이를 좋아한다. 1년 전 사고로 국가등록 장애인이 되어 바뀐 삶의 양태에 적응하고 있다. 개념 있게 살고파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데 정보공개청구센터라고 잘못 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진임이라는 이름 대신 정임이라고 잘못 불린 적은 훨씬 더 많다. 하지만 뭐 어때. 이래도 저래도 모두 나고, 나의 삶이다.

동물권 의제 PM



권유경

페미니즘과 고양이, 이 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사는 방식에 변화를 겪었다. 이 둘은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슬프게도 만들고, 고민하게도 만들고, 행동하게도 만든다. 모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김혜란

동물과 사람의 좋은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믿으며 카라에서 일하고 있다.

TIP!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들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디자인 씽킹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으로 아래 5단계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구현된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툴킷’,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워크북’을 내려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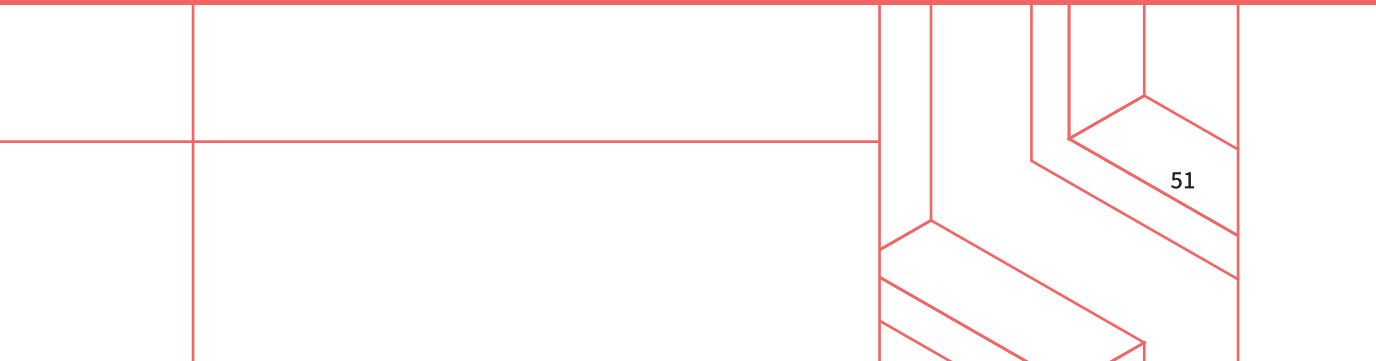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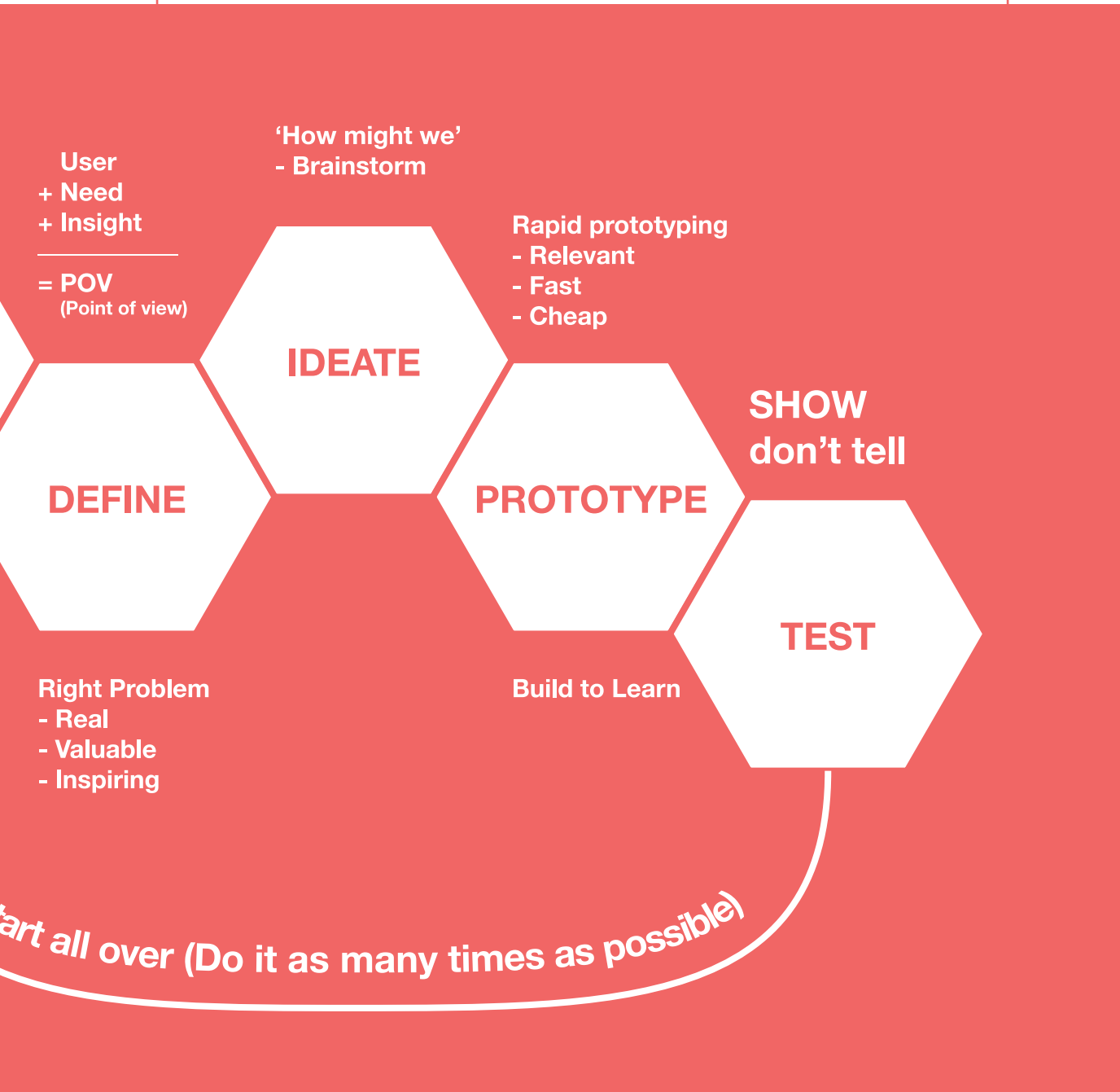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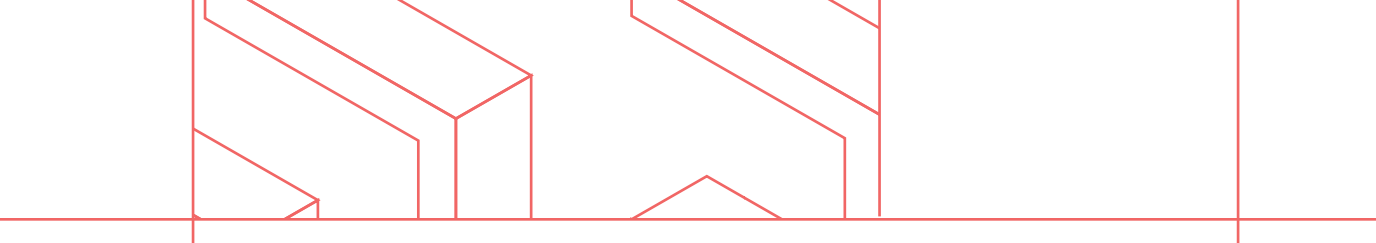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는 운동의 새로운 해결책을 세우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My Design Thinking Cheat Sheet

Observation
Interview
Immerse

EMPATHIZE

Search for rich
Stories and find some
LOVE



○ MECE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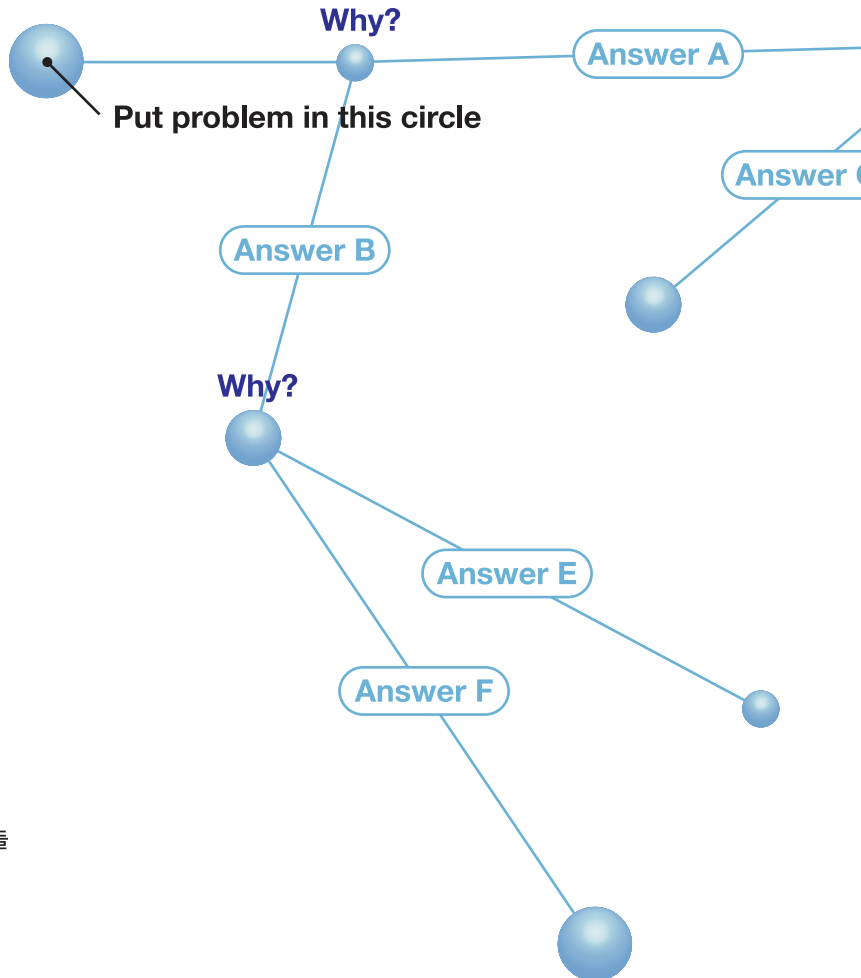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약자, 상호 배제와 전체포괄)는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는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포괄했을 때, 겹치지 않으면서도 개별로 나누었을 때 빠짐없는 분류를 말한다. 맥킨지 회사에서 로지컬 씹킹 개념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로지트리(Logic Tree)를 통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누락없이 중복없이 검토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로지트리(Logic Tree)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Why tree, 문제의 해결책을 내오는 과정에서는 How tree를 사용하여 문제의 깊이 있는 진단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Why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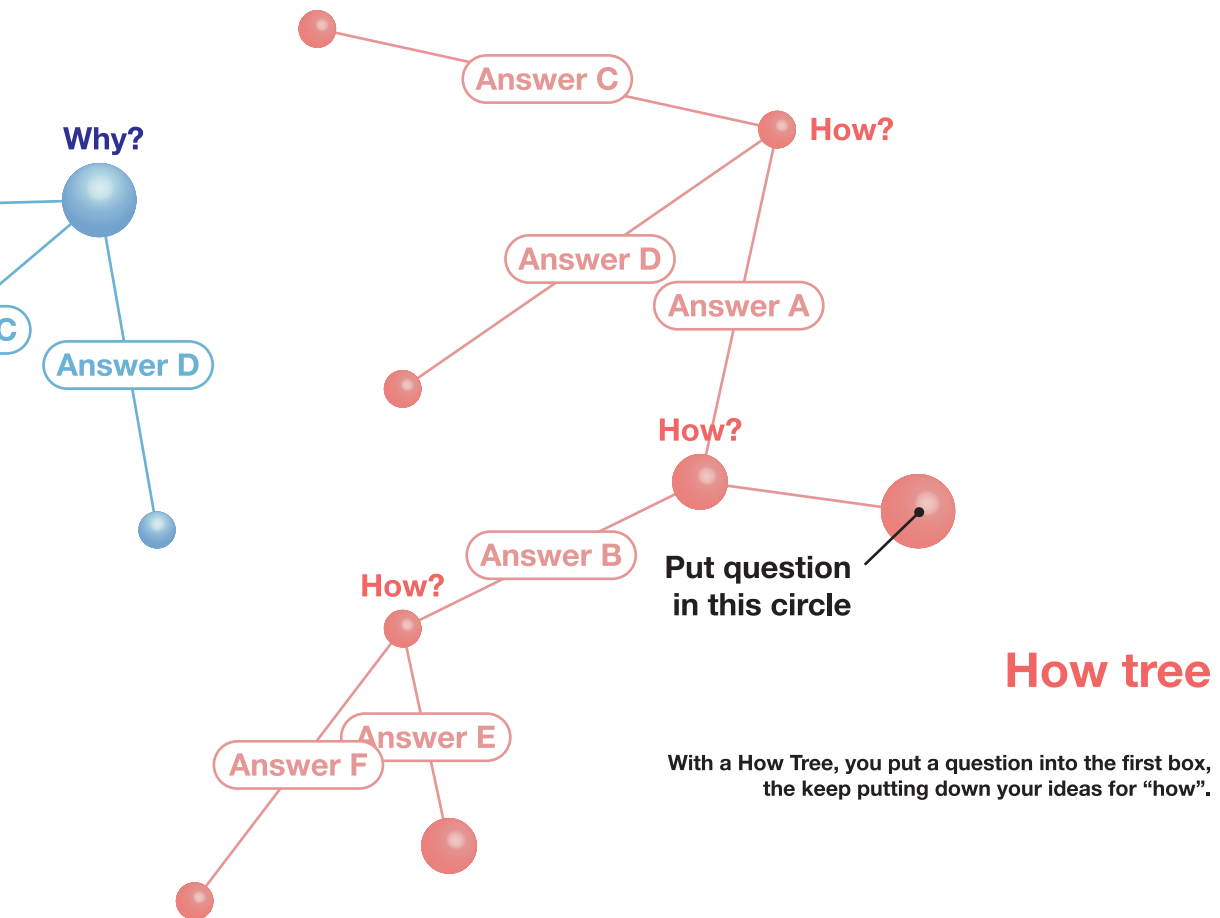
With a Why Tree you start with a news Story or a problem in the news in the first box, then just keep asking yourself "why?" about everything you write down.



○ SMART 기법

문제의 해결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목표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 S** Specific : 구체적이어야 한다
- M** Measurable : 측정가능해야 한다
- A** Action oriented : 행동(실천) 지향적이어야 한다
- R** Realistic : 실현 가능해야 한다
- T** Timely :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





발행일 2016년 11월 23일 (SNPO 2016-A-009)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소 (110-84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화 02-734-1109
전송 02-734-1118
메일 contact@seoulnpocenter.kr
홈페이지 www.seoulnpocenter.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서울시  지원센터

발행일 2016년 11월 23일 (SNPO 2016-A-009)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소 (110-84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화 02-734-1109
전송 02-734-1118
메일 contact@seoulnpocenter.kr
홈페이지 www.seoulnpocenter.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